

휠체어 사랑 이야기로 선교지 장애인 섬겨요

살롬장애인선교교회 주최 '제13차 휠체어 사랑 이야기' 33차에 걸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 통해 12개국 5만여 명 장애인에게 실제적 도움줘 올해 34차에서는 휠체어만도 1만개 넘는 선교열매

살롬장애인선교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주최 '제13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가 17일(주일) 저녁 7시 LA한인타운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 콘서트는 매년 한차례씩 정기

적으로 열리는 행사로서 그 목적은 세계 각 선교지에 꼭 필요한 휠체어 및 의료기구를 보내기 위한 기금 마련에 있다. 특별히 이날 열린 행사는 콘서트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일체를 올해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에서 휠체어만도 1만 대를 훌쩍넘기는 의미있는 사업을 후원한다는 데 있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지련의 자매 기도,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담임, 본선교회 이사장) 설교, 소프라노 박유선 자매의 두 차례 독창, LA 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의 두 차례 합창, 남가주농아교회(담임 강상희 목사) 수화찬양팀 수화찬양, 각 선교지에 보내진 휠체어 및 의료기구 선교 영상 보고, 한

국을 대표하는 유엔젤보이스 남성중창단의 중창, 살롬장애인선교교회 찬양팀(지휘 김명숙 전도사) 특별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된 다음, 출연자 전원이 함께 "Shalom, Shalom!"을 합창한 후 류재덕 목사(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본선교회 이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가주농아교회 강순례 사모는 콘서트 내내 수화 통역으로 농아자들을 섬겼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하나님의 뜻은
 긍휼용서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펴셨다.

기독교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종교이다.

이러할진대 형제간 다툼이 어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마23:19).



콘서트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전원이 "Shalom Shalom!"을 합창하고 있다. 박모세 목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박모세 목사 부부.

“미국인 10명 중 6명 성(性) 정체성 문제에 관대해”

성 정체성 변경과 실제 성전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성(性) 정체성 문제에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문제와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문제는 도덕적 평가 면에서 차이가 다소 있었다. 먼저 출생 시 성(Sex)과 다른 성(Gender)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35%였으며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

았다'는 사람은 45%였다. 또 이 문제가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고 본 사람은 1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였다. 그러나 단순히 성 정체성 인식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 성전환을 위한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응답은 그 결과가 약간 달랐다. 이런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응답은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였다. 다시말해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

는 사람은 35%이지만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42%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반대로 성 정체성 변경이 잘못이 아닌란 경우는 45%였지만 실제로 성전환 문제로 가면 그 수치가 줄어 43%가 잘못이 아니라 봤다. 이 결과에 관해 스콧 맥코넬 디렉터는 "미국인 다수는 창조주께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관점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한국 중고생 165명 중 1명 동성애 경험”

동성애자 약물 사용 노출 위험도 심각

한국 중고생의 34.2%가 이성간 성접촉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성접촉은 키스를 비롯해 애무, 성관계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165명 중 1명꼴로 '동성간 성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두석·이동운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8만여 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5년치(2008~2012)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고교생은 모두 37만3천371명이었다. 이성간 성접촉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모두 12만7천594명(34.2%)이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美연합감리교회, 사상 첫 동성애자 주교 선출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주안예교회 ICCB
 창립 3주년 감사예배

3rd Anniversary

2016년 7월 31일(주일) 오전 11시 |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1부 8:45am . 2부 11:45am
 금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87

엘에이채플 LA Chapel
 주일예배 1부 8:45am . 2부 10:30am
 목요 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232-3163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예배 1부 9am . 2부 11am
 수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el: (657) 217-5558



ATS 정회원 가입 간담회를 마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S 정회원 된 명문 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GMU)가 지난 6월 17일 미국의 신학교인증기관 중 가장 권위있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이 되었다.

ATS는 북미주 최고의 신학대학원 인가 기관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우수한 신학대학원(Trinity, Dallas, 웨스트민스터, 풀러, 탈봇, 프린스턴, 하바드, 예일, 칼빈 신학교 등)이 가입되어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지난 1995년 해외 파송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학교이다. 그 후 빠른 성장을 보이며 미연방교육국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권위있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남가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

학교는 합동보수 국제총회의 PCI-GA 교단신학교이다. 위치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이고, 26에이커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학력은 현재 TRACS(미국 기독교학교 연합)와 ABHE의 정회원, 그리고 ATS의 정회원의 우수 신학교들과의 학점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GMU는 1-20는 물론이고, 연방정부 학비보조 및 TA(군인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은 현재 학사과정(BA, 4년), 기독교교육 석사과정(MA, 2년), 다문화석사과정(MAICS, 2년), 상담, 리더쉽, Business As Mission 전공), 목회학 석사과정(M.Div, 3년), 그리고 선교학 박사과정(D.Miss)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교학 박사과정은 미국내에 있는 한인신학교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과정이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강의로 전세계에서 신학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신학교의 모든 강의는 100% 녹화되어 'Moodle'이라는 인터넷 통신강의 시스템에 올려진다. 현재 직접 학교에 올 수 없는 원거리나 타주, 심지어 해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있다.

-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문의: 714-525-0088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www.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제공]

“성경, 신학, 심리학전문성 갖춘 상담가 양성”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 개설



김용환 교수
미주장신대 디렉터

미주장신대 회신학대학교가 크리스천 상담심리학 석사(M.A.C.P., Maste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을 개설

러한 어려움을 성경, 신학, 심리학이 조화롭게 하나된 통전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학과 교수로는 아세아연합신학대(B.Th., Th.M.), 장로회신학대(M.Div.), 에모리대학교(Th.M.), 클레어몬트신학교(Ph.D.)에서 공부한 김용환 교수 외에도 연세대(M.A.), 보스턴신학교(S.T.M.), 샌프란시스코신학교(M.Div.), 클레어몬트신학교(Ph.D.)에서 공부한 박광희 교수가 임명됐다.

다문화 속에 이민자로 사는 한인들에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심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이상명 총장은 “이민사회는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장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영적 혼란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면서 “이 석사 과정은 복음적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합을 추구하면서 깊이 있는 이론, 실제에 근거한 훈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주장신대와 한인신학교들이 목회상담학과를 두고 있지만 미주장신이 개설한 이 학위 과정은 크리스천 상담심리학이다.

이에 대해 디렉터 김용환 교수는 “기존의 목회상담학에 복음주의 신학적 토대와 최신 심리학적 방법론을 더해 학위 과정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민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위로와 재충전을 제공했지만 이민사회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상담인력과 사역의 부재로 인해 이민자들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후 “크리스천 상담심리학과는 이민교회와 이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과정은 ABHE(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로부터 지난 6월 27일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총 48학점으로 구성돼 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 평신도들에게 열려 있다.

오는 8월 26일까지 입학 원서를 접수받아 8월 29일 개강한다. 학점당 230달러이며 학교 측은 성적 장학금, 사모 장학금, 목사·선교사 자녀 장학금, 교회 지원 장학금, 차세대 장학금, 조교 장학금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향후 학사 과정(B.A.)과 박사(Ph.D.)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학위 과정에 더해 미주장신대는 교내에 산타페 크리스천 상담센터도 내년 중 개소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상담 실습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한인 교회에는 상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문의: 김용환 교수(yhkim@ptsau.edu)
-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전화: 562-926-1023
- *웹사이트: www.ptsau.edu

김준형 기자



동양선교교회(OMC)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해 17일(주일) 오후 감사음악회를 열었다.

“동양선교교회 창립46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웅기장이 찬양선교단 등 참여...7월 29일(금) 조용중 선교사 초청 부흥회도 개최

LA 한인타운의 역사와 함께해 온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해 감사음악회를 열었다. 주일인 17일 오

후 1시 30분 열린 이 행사에서는 웅기장이 찬양선교단, 아베 마리아로 유명한 가수 김승덕, 색소폰 연주자 박찬경, CCM 루키 대회 대상

장승기 등이 출연해 찬양했다.

또 동양선교교회는 이어 7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30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주일 예배 시까지 조용중 선교사를 강사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의 부흥회를 연다.

조 선교사는 GP선교회 미주 및 국제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개발 NGO인 글로벌호프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준형 기자

“휠체어 사랑 이야기”

[1면으로부터 계속] 또한 아프리카 브론디에서 암과 투병하며 한센인 선교에 몰입하고 있는 신인환 선교사와 신응남 선교사(사모) 부부도 직접 참석하여 아프리카 한센인들을 향한 성도들의 후원의 손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영기 목사는 마태복음 25장 34절~3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에서 “주님께서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사랑 이야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역이다. 이 작은 섬김이 ‘그 한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

이 곧 주님의 마음이다”며 “서로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은 지난 1999년 9월 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3차에 걸쳐 전세계 12개국에 5만 여명 이상의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효과적인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

- *주소: 2869 W Pico Blvd., LA, CA 90006
- *문의: 323-731-7724
- *웹사이트: www.shalommin.com

이영인 기자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일보 신문사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모토로 미주 교회의 연합과 기독교문화 창달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해 온 저희 기독교일보 신문이, 오병익 목사를 이사장으로 세워
더욱 열심히 주님 일에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익 목사
• Sung Kyul University (B.A.)
• Azusa Pacific University (M.A, M.Div)
•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Min)
• 미주 장로신학교 교수 및 학생처장 역임
• 현재 남가주 벨엘교회 담임목사(미국 이민목회 40년)

일시 2016년 7월 31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남가주 벨엘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213)739-0403(기독교일보)



이정근 목사가 18일 LA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그의 신간 소개 시간을 가졌다.

“함께 사는 함생주의 목회”

이정근 목사...신간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펴내

함생주의(咸生主義, combio-sism)를 주창한 이정근 목사가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를 펴냈다. 그의 평소 지론인 “목회 있는 신학, 신학 있는 목회”에 걸맞게 신학의 의미를 목회 현장에서 찾으며, 그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그는 “함생주의는 모두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끝까지 사는 것, 온전히 사는 것, 그리고 남을 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체계”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그의 이민 목회 현장을 토양으로 해서 나온 사상이지만 신학이나 목회뿐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목사는 유니온교회에서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직분만 해도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를 거쳤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서울신학대, 애스베리신학교, 조지프스신학교, 클레어몬트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신학자로 변신했다. 결국, 여러 신학교의 교수를 거친 후, 웰드미션대 총장, 미주성결대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교계 활동도 왕성해 미주성결교단 총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뒀다. 목회와 저작 활동이다. 유니온교회는 그가 30년 전 개척해 미주성결교단을 대표하는 중대형교회로 성장했다.

기독교사상, 조선일보, 미주 동아일보, 한미신보, 크리스천헤럴드 등에서 언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의 전공 분야인 기독교 교육학의 저서와 다양한 수필, 시, 조각, 목회 칼럼을 남겨 그의 이름이 들어간 저서만 해도 30권이 훌쩍 넘는다.

이번 책은 그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늘 했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정근 목사의 고민과 갈등, 기쁨과 감사함이 함생목회론의 기초(목회 있는 신학, 신학 있는 목회), 함생목회의 원리(예수님처럼 목회하기), 함생목회의 실천(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등 3부로 나뉘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준형 기자

“기적의 한달 영어 통달법”

“미주 한인 1세들의 영어 고민 해결”

많은 미주 한인 1세들의 고민인, “영어”를 30일 만에 해결해 준다는 “기적의 한달 영어 통달법”이 LA를 찾아온다. 이 방식은 17가지 영구 기억 방법론으로 영어를 익히며 900개의 문장에 기초해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게 해 준다.

이 방법론을 창안한 이방석 목사는 “목회자들은 이 기간 동안의 학습으로 영어 설교가 가능해지며 평신도들은 회화와 각종 강의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 목회자들이 영어 설교만 가능하다면 미국 전역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영어 설교의 장벽으로 인해 목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터득한 영어 설교법을 전해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8월 한 달간 가디나에 소재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에서 강의를 열린다. 특히 8월 2일(화)~5일(금)까지 열리는 목회자 대상 강의는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00불에 해당하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목회자들의 영어 설교를 위해 캐나다의 한 독자가 15,000달러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을 위한 강의는 8월 6일~ 9월 2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월요일 집중반, 토요일 집중반(300불)이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



강사 이방석 목사

지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열리는 주간반(500불)과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열리는 야간반(400불)이 있다.

강사 이방석 목사(Moses Lee)는 풀러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페이스루터란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다. World Prayer Summit의 총재이기도 하다. 이 영어 학습법으로 11개 국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언론인이자 텍사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린다 로얄 박사도 강의를 맡는다.

이 행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협찬하며, 21세기 세계 디아스포라, 조지아코리아웰로십(GKF)이 후원한다.

*문의: 678-822-8607
*웹사이트: www.kingdomizers.org



크리스천 힙합가수 비와이가 쇼미더머니5 공연에서 우승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겼다. @Mnet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쇼미더머니5 통해 세상에...크리스천 정체성 심은 비와이

한국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넷 '쇼미더머니5'가 낳은 '힙합스타' 비와이(본명 이병윤·23)가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M아카데미에서 열린 우승팀 기념인터뷰에서 솔직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프로그램 방영 기간 내내 화제를

몰고 다닌 이 '괴물 래퍼'는 15일 밤 마지막 무대에서 결국 우승하며 상금으로 1억 원도 받았다.

이날 수많은 질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말(?)로 신앙에 대한 것.

이에 대해 비와이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분들이 속되게 말하는 '예수쟁이'다. 예수님이 저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 “그냥 뭐랄까, 믿기 전의 내 삶과 믿고 나서는 삶을 비교했을 때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비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다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삶에 있어서 그 분이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며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다 지키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비와이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비와이의 진지한 신앙과 솔직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장세규 기자

“정신건강 예방과 대처방안 특별 담화”

7월 28일(목) 오전 10시~12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한인들의 정신건강상태 실태 파악과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여자들의 궁금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한인들만을 위한 혜택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주제는 “한인들만의 혜택을 위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오픈 포럼(LA 카운티 정신건강

국장 District Chief와 공개 질의응답-정신건강 예방과 대처방안 특별담화)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한인 및 커뮤니티를 위해 함께 일할 새로운 담당자 이주호(LMFT) 정신건강서비스 코디네이터도 소개된다.

*일시: 7월 28일(목) 오전10시
*장소: 미주평안교회
*주소: 170 Bimini Pl, LA, CA 90004
*문의: 이주호(213-738-3454)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될 해를요?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마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회자 초청 건강세미나

목회자의 건강과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남가주 지역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을 초청합니다.

“호스피스(Hospice)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강사: Dr. 최승호 (Grace Hospice 원장)
- 일시: 2016년 7월 26일(화) 오전 10시~정오 12시
- 장소: 비원부페 2층 세미나룸
19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회비: 무료(점심제공)
- 참석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교회사역자
- 문의: (213)272-6031 엘리자 김 목사
(213)263-1364 다니엘 안 목사
- 병원 채플린사역 안내:(323)708-3546 김미중 간사

세미나 참석자에 한해서 병원 채플린 사역(유급) 특혜를 드립니다.

주최 우리복음방송, 크리스천비전신문사
공동주관 남가주한인목사회, 미주크리스천대학교, 나눔과섬김의교회
후원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2016년 할렐루야대회가 15일~17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자”

2016할렐루야대회...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 대회가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5일~17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 앞서 뉴욕교협 소속 목회자들은 11일과 12일 양 일간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가두홍보를 진행하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었다.

올해 할렐루야대회에는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각 지로부터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눴으며 강사 원팔연 목사는 시종 유쾌한 가운데서도 지금 세대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에 대한 진지한 메시지를 이어나갔다.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대회를 통해 “오늘 세대는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동성결혼, 윤리성 상실, 이단 사이비 등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기”라며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통해 이러한 비진리, 불합리한 것들을 철저히 탈피하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자”고 선언했다.

원팔연 목사는 첫날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오’(창12: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오늘날 이민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새기고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할렐루야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는 금강산 연회

장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45년 목회 노하우를 덕담 형식으로 뉴욕 목회자들과 나눴다. 목회자 세미나는 매년 할렐루야대회 이후 강사 목회자가 진행해 온 주요 행사로 2016년 할렐루야대회는 오는 9월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남겨두고 대부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원팔연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과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이 두 가지 소원은 목회 초기부터 45년이 흐른 지금까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전주바울교회가 있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소신임을 전했다.

김대원 기자



새생명교회가 창립25주년 및 조용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잃어버린 영혼찾는 참된 교회될 것”

새생명교회 창립 25주년 담임목사 취임예배도 드려

새생명침례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지난 10일(주일)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조용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흠 많고 부족한 자일 뿐이다.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

족한 종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동역 할 성도에게 감사의 전한다.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축하의 말을 전한 뉴올리언즈대 학교 이종길 목사는 “조용수 목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이며 화평을 사랑하는 분이다. 리더

십의 성패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주는 가이다. 따라 줄 때 온전한 리더십이 나온다. 새로운 담임목사를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라줄 때, 온전한 지도력이 나오고 온전한 결과가 나온다.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예배는 25년간 교회의 역사를 함께 한 모든 교인들이 감사와 →

윤수영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6. 관대한 조각가

유대 토라의 첫 책, 베레쉬트(Bereshith, 저자주-태초에라는 뜻으로 창세기라 번역된다)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처음보고 나는 정말 크게 놀랐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로 심판받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정확한 숫자와 등장인물들의 이름, 나이, 계보와 함께 말도 안되게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대에 알려진 어떠한 그리스어 라틴어 기록물도 그 정도의 정교함을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에 베레쉬트는 그 대단한 진술로 볼 때, 뺨이 아주 큰 사람의 저작물이라거나 오랜세월에 거쳐 쓰여진 신화로 폄하하기보다는,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라 믿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베레쉬트에 기록된 여호와와 종종 뺨한 선택을 일부러 피하고 약자의 편을 드는 경향을 보인다. 인류 최초의 죄로 기록된 가인의 아벨 살해도 신이 동생의 제사만 받은 데서 온 결과이다.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을, 그리고 12형제 중 막내 요셉을 선택하고, 형 아론이 아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등 이런 성향은 이스라엘의 초기역사에 계속 반복된다. 신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 역시 그들이 주변에서 가장 보잘 것 없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인간은 여호와와 또 다른 품성인 질투심을 닮은 존재이다. 선택받지 못한 가인과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주위 민족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집안내력인지 신의 아들 예수가

유대지도종의 교만을 꾸짖으며 죄인과 약자 편에 섰던 탓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인간세상의 모든 싸움과 불행의 근원은, 각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과 조건이 다르다는 데 있다. 뛰어난 인간의 열심은 그에게 필요 이상의 재화를 가져다 주며, 그에게 특별한 약의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유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시작된 격차는 부족과 나라로 단위가 커지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뒤엉킴속에 피비린내를 가져온게 인간의 역사다. 누군가는 그러한 불균형을 가져다 준 신의 창조질서를 비난할 것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나는 왜 빛나는 대리석조각이 되지 않았냐고 조각가인 인간에게 불평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주어진 현실을 불만스럽게 버티는 노예가 되지 말고 아예 새로운 판을 소망하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 세상을 고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성공하더라도 이내 또다른 불평등이 싹틀 것이기에, 내 보기에 예수의 가르침은 베레쉬트를 일찍이 인간에게 전해준 초월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시행착오 끝에 모든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다. 조각가가 대리석조각상 옆에 떨어진 돌덩이에 까지 마음을 주고 있다니 이런 관대한 신이 어디 있던 말인가.

<계속>

→축하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며 20년 근속한 배성철 집사에게 감사패, 교회 리더들의 추천을 받은 박기홍, 이원희, 채욱천, 여동섭, 전계영 마을장(집사)들에게 감사장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말씀을 전한 조용수 신임 담임목사는 “우리가 원하는 교

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와 일치하기를 기도한다. 새생명교회가 21세기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영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VBS T-Shirt

No Set up fee, Only \$4.50 each!

어린이용 흰색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Special Event
 어린이 VBS 풀칼라 프린트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선물용 VBS CD 무료 증정

VBS CD
 (Copy & Print) \$50 (50개)

VBS, 수련회, 단기선교, 체육행사등을 위한 T-shirts Print!!!
 교회이름 넣어 드립니다. (Custom 디자인)
 각종 Invitation card, 판촉물, Banner, 수건인쇄,, 디자인 및 인쇄 가능합니다.

Tel:323.265.0244 ◆ 3170 E. 11th St. LA, CA 90023 ◆ topmedia153@gmail.com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

시편 130편 1절 - 8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부모님이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낳게 하신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공감을 이루어 온 종교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흑인, 황인, 백인 차별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지극히 깊은 절망에, 몹시 다급한 상황에,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허세 떨고 광내는거 보고 나도 몽키 스타일로 원숭이 흉내내는 식으로 빛이라도 얻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나가 웃이 낡기도 전에 빛이 솟을을 조여 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나친 과시적 허세가 자기 인생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솟을을 조르는 오라줄에 얽혀 메이고 말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물리적 어떤 사치품으로 단장하려 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답다 하고 그 사람은 얼굴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뜨거워질 때 보름달처럼 스마일하게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사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의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의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달라고 애끓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몰랐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을 것이고 부르짖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깊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구원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엄청나게 두터운 장벽으로 가로 막아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어져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그물로 두배를 채워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사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모시고 살면 수치 맞겠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죄가 많은 인생이라 모시지 못할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하는 참화가 베드로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회개로 통곡하게 했겠습니까!

2. 본문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날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라고’하고 싶은데 제일 크게 부담되는 장애물이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에 깊은 골방에서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런데 그 죄를 감찰하신다고 하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졌느니라. 그래서 너는 의로워졌다. 너로 내 아들, 딸을 삼으리라.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쬐서 너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게 하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고 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나를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하고 긍휼을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죄인 괴수들이 회개만 하고 신앙고백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알게 믿어지게 회개케 하시고 그가 회개해서 그 엄청난 지옥 형벌의 죄와 저주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빛을 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주신 그 은혜가 황송무지해 너무나 감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대속하시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계시와 조영,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그 아들을 알아보고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성령이 회개 사기시는 대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죄 없는 의인의 자격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들, 딸의 신분으로 하늘나라 호적의 생명책에 등록시켜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못할 것 다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에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자녀의 구실을 다해야 합니다.

3. 6절에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7-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 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자기문제도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라서 이토록 자기도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과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믿음이 되어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실 지체나 그릇이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쓰임 받는 모습 보자는 것이 영적지도자로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울무와 재앙으로 인생을 망치려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생명길을 지시하시며 성령께서 하늘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소원할 때 넉넉히 섬기고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감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ies

Beautiful Church
Rowland Heights, California, United States

Position: Children's Pastor
Denomination: Baptist-SBC
Job Type: Full Time

Job Description:

Qualifications

Education and Experience:

- * Bachelor's degree in Children's Ministry or a related field is required;
- * Work experience in a church-based children's ministry utilizing volunteers is required;

Faith and Life:

- * Must be called by God to minister to children and preschoolers;
- * Must have a grow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Statement, Core Values, statements of faith, Constitution, By-Laws and general vision of Beautiful Church;
- * Must be willing to become a member of Beautiful Church;
- * Must pass the church's criminal background check proces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nior Pastor;

Ministry Skills:

- * Servant attitude towards God, leaders, other team members, the church, and guests;
- * Self-motivated with a team approach including the ability to motivate volunteers;
- * Competent in leadership abilities to include organization, delega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 Proven ability to work well with parents, volunteers, church staff and children;
- *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 Strong decision making skills;
- * Demonstrated ability to recruit and coordinate volunteers;
- * Please submit a résumé, statement of faith and/or personal testimony, a recent sermon video clip or web link, and ministry 3 references.

Contact: Sarah Park

beautifulchurch@hotmail.com / (626) 810-3455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beautifulchurch.org

• 교육칼럼(7)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2)



제이슨 송 교장
세연약초중고등학교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 첫번째 언어인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 및 표현)에 대해 계속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 및 표현)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먼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겠다.

첫째, 비난(criticism/condemning)을 중단하라. 둘째, 가족회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라. 셋째, 솔직히 서로의 아픔을 나누라. 특히 부모도 자녀로부터 상처받고 있음을 십대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 넷째, 십대자녀에게 정확한 선(boundary)를 알려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글로 쓰는 것도 좋다. 다섯째, 부모가 너무 과격한 표현이나 협박을 금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과 표현을 부모가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 칭찬: 무조건 아이를 칭찬하지 말라. 성적이나 성과를 칭찬하기 보다 노력과 인내심, 지구력을 칭찬하라. 일반적인 표현(잘했네, 똑똑하다, good job 등) 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또 아이가 주어진 일이나 과제를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잘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칭찬하라. 하지만 과찬은 삼가하라. 아이들도 부적절한, 의미없는 칭찬을 알아챈다.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한국 EBS방송에서 한글로 제작

한 "칭찬의 역효과"란 방송을 청취해보기 바란다(키워드: 캐롤 드웬, EBS, 그리고 칭찬의 역효과).

* 애정의 표현: "사랑한다"란 말은 항상 자녀에게 필요한 말이다. 하지만, 십대시절엔 "사랑한다"란 표현이 청소년에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특히 다른 친구 앞에서. 그러므로 사랑한다란 말을 privately, 개인적으로 하고, 진심으로 전달하라.

사랑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랑스럽다(I am proud of you.),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I am so thankful whenever I think of you.), 내가 함께해서 참 좋다(I a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me.), 보고 싶다(I miss you.) 등.

* 남 앞에서의 표현: 가끔 온 가족, 대가족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봐라. 예를들어, 할아버지 생신 잔치에서, "오전에 잔에게 말

했지만, 농구게임 중 심판이 오류를 범했을 때 잔의 반응과 행동이 참 모범적이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다." 또는 "오늘 미술전에서 메리가 우수상을 받아 참 자랑스러웠다. 앞으로 미술을 전공해도 참 잘할 것 같다."

칭찬이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예는 다음과 같다: 대화를 통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도록 격려하라.

포스트잇 같은 노트에 격려의 말을 적어 아이의 방이나 책상, 또는 점심 백에 넣어주라. 명언이나 좋은 문구를 적어 아이에게 전해주고, "이 표현이 바로 너에 대한 것 같다"라고 말해주라. 아이의 그림이나 아트웍을 액자에 넣어 방에 걸어놓으라. 출장 중에도 매일 아이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라. 아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다 실수를 범해도 우선 아이의 의도가 좋았음을 인정해 주라. 집에 "격려의 병"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양한 격려의 표현을 넣어둔다. 그리고 아이들이 낙심할 때 그 병에서 격려의 표현을 하나 골라 읽게 한다.

칭찬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는가? 힘과 권위로 청소년 자녀를 다루지 말고, 사랑과 격려로 자녀의 기를 세워 주고 자녀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부모가 되자.

오늘도 예수님이 생각나는가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미국, 호주, 유럽, 한국 속 초 등에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경찰이 또 저격 당하고, 프랑스 니스에서는 IS 테러가, 그리고 터키에서는 6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로 가담혐의자 6천여 명이 피의 숙청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내 뼈속 깊이 느껴져 오는지. 만약 주변에 아픈 환자라도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 그 외의 모든 것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된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다. 즉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며 직장에서는 "오늘은 좋은 일이다 기분 나쁜 일이다 주님을 생각해야지"하고 결심한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잘 생각나는가? 그토록 간절하게 사랑의 주님이 순간 순간 기억에 떠오르는가?

요즘을 현대인들은 '나만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 '나만병'은 "나만을 바라봐 주세요"란다. 그러다 보

어 근신할지니라"(살전5: 6). 기도 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생활속에 주님이 충만하다는 말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누21: 36).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장차 오실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가정, 일터, 교회 등에서 최선의 사람, 감사의 삶, 목사의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는가? 지금이 시간 호흡을 길게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자.

니 나 따로, 주님 따로가 된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다. 말씀 따로 직장 따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눈앞의 현실로 보이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13:33).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

누구의 유익인가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갈수록 "희생"이라는 단어가 고전에 속하고 있다. 부모님의 희생, 스승님의 희생, 지도자의 희생, 이런 어휘들이 우리를 감동시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희생하려 들지 않는다.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가치에 있지 않고 계산에 있다. 계산기를 몇 차례씩 두드리면서 철저하게 손해와 이익을 먼저 따진다.

세상에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개인적 이기주의는 거짓과 위선과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포장된다. 나에게 유익이 될만한 일은 앞을 다투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지극히 외면한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사회적 파괴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연합하여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상식은 사라지고 모두가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속이면서 떠밀려 간다.

집단 이기주의가 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프랑스의 니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 앞에 무참히 쓰러졌다. 한 집단이 슬퍼하는 그 시간에 다른 집단은 춤을 추고 있었다.

요즘에는 들어보기 힘든 "군부혁명"이 터키에서 일어나 수백 명이 죽었다. 우리 조국의 어떤 읍내 사람들은 여러 시간동안 이성을 잃고 한 나라의 총리를 역류했다. 집단 이기주의는 정상적인 사고(思考)를 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초개인적인 생각이 군중을 지배한다. 훗날 후회할지언정 지금은 모두 그 생

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집단적 이기주의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다. 사도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에게 중심을 두면 개인적 이기주의가 되고 우리에게 중심을 두면 집단적 이기주의가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가오는 세대에 중심을 두면 "사랑"이 된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지 않으며, 즐기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단호히 절제하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린도전서 10:23-2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한달 영어 통달법

30일

단 30일 이면 영어가 **확** 트입니다.

기적의 한달 영어 통달법으로 영어 설교가 가능해 집니다.

영어 어렵다구요?
영어 무섭다구요?

Dr. Moses English

한달이면 누구든 영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KBS 아침을 달린다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이방석 박사의 기적의 한달 영어 통달법
17가지 영구 기억 방법론으로 한달만에
영어 설교, 회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방석 박사
(Dr. Moses Lee)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문화인류학 박사(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1994) Faith Lutheran Seminary 조직신학 교수 역임
- WPS(World Prayer Summit) 총재: 미국백인 목사님 5만명, 멤버십 1억명인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정적인 기관중의 하나임.
- 교황과 오바마 접견시 WPS(World Prayer Summit) 총재 자격으로 초대됨(2015.9.23.)

수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영어 설교만 가능하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선교 지 곳곳에서 목회를 초청하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 목회자와 달리,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도 영어 설교가 되지 못해 영어권 목회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터득한 영어 설교법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 되듯이 한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문장을 자유 자재로 설교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이 강의를 들으면 영어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남은영, Swell 1기생, 현 서울여대 교수

저의 대학생활은 학과를 따라가지 못하여 좌절의 연속이었고, 학점도 엉망이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 Swell 프로그램에서 영어 통달법을 들은후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기적같이 트였습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이 영어통달법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 University of Washington Ph.D, 수석졸업
- 현 서울여대 교수
- 남은영 "MBC 인간만세" 에 초청인사로 출연

이규석, 몽골대학 교수

처음에는 짧은 시간에 영어가 트일까 하고 의심을 했으나 수업을 듣자마자 영어가 느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영어로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며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석 박사의 방법론을 적용시켜 몽골대학 전 학생들에게 영어로 훈련시켜 영어가 학교 공용언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명현, 베스트셀러 흔들리지 않는 영문법 저자, 인기 영어강사

영어를 못하던 제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자 놀라던 저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비결은 이방석 교수님의 영어 통달법이었습니다. 모국어를 배우듯 영어를 배우고 속성 암기를 통한 교수법으로 인해 몇 년의 영어공부로도 할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영어 통달법입니다.

수강후기

- **일시** 8월 2일(화)~8월 5일(금)
 - 목회자, 선교사 전액 장학금 1인당 \$500,
 - 캐나다 독지가가 300명의 목회자가 등록 할 수 있는 \$150,000 을 후원했습니다.
 - 선착순 300명 한정.
- **일시** 8월 6일(토)~9월 2일(금)
 - 월 집중반, 토요일 집중반 \$300,
 - 화~금 오전반 \$ 500, 오후반 \$500

• **장소**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문의 및 등록** 이방석 박사(Dr. Moses) T. (678)822-8607



'2016 영성일기 컨퍼런스'가 18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영성일기 통해 목표가 목회에서 주님으로”

유기성 목사, 컨퍼런스에서 유익 나눠...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2016영성일기 컨퍼런스가 18일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렸다.

유 목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정상"이라며 "진밀한 관계가 되려면 꾸준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다.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했다.

'왜 영성일기인가?'를 제목으로 발표한 유기성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웠으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소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역자들 중에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한 채 사역에만 몰두하다 지쳐 낙심하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시작

된 일"이라며 "동역자들과 교인들에게 매 순간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힘쓰며 그것을 매일 기록해 보기를 권했다. 이 일기를 영성일기로 이름 붙였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목사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삶의 목표가 목회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목회 현장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요동쳤었다. 그런데 주님이 목표가 된 후부터는 목회 현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다"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보면 사역의 규모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하니 마음의 요동침도 많이 잦아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목회를 잘 하기 위해 주님을 찾진 않는다. 그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뿐"이라며 "좋은 길을 가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일기' 제목으로 발표한 정성욱 교수(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종교생활은 넘쳐났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예배와 삶이 분리돼선 안 된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경지까지 올라가야 한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과 공적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기성 목사와 정성욱 교수 외에도 이은재(감신대 역사신학)·유재경(영남신대 영성신학) 교수가 각각 '경건주의와 영성일기' '기독교 영성형성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군동성에 합법화 반대한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150개 시민단체 반대집회 개최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군형법 92조의 5'의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위헌소송에서 합헌이 결정된 이후 또다시 위헌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재에서 위헌심사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여러 단체에서 기자회견 및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현 군형법 처벌법을 유지하도록 '합헌' 결정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전국적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군인권연구소를 비롯한 150개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군형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군대내 동성애 현상과 성폭력이 만연할 것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 지적하고, "군형법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군에서 항문성교가 자유롭다고 하면 부모들은 AIDS의 불안감으로 자식을 군대 안보내기 운동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군에서 에이즈에 감염돼 평생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한국 중고생 165명 중 1명 동성애 경험”

[1면으로부터 계속]여학생(6만7천304명)이 남학생(6만290명)을 상회했다.

전체 표본 중 2천306명(0.6%)이 동성애 경험이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1천360명)이 여학생(946명)보다 더 많았다.

동성애자 그룹은 음주와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각각 2.84배, 4.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는 약물사용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는 이보다 더 심하게 각각 13.54배, 8.09배까지 치솟았다.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이 나쁜 약물에 손을 대거나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다. 또 동성애 경험에 있는 학생은 이성애 경험에 비해, 자살 생각 2.75배, 자살 시도 4.18배 등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됐다.

오지환 기자

“새 시대 선교사 모델은 '한국형 국제기독교학교' 설립”

2016 KMQ 포럼 개최...KWMA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 발표

세상은 변한다. 때문에 선교 방법은 늘 새로워져야 한다.

한정국 선교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는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모델로 '한국형 국제기독교학교'를 제안했다.

18일 은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2016 한국선교 KMQ 포럼'에서 한정국 선교사는 "한국 선교계가 시도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한국형 국제기독교학교 모델 만들기' 제안했다.

이는 선교지의 상황이 전통적 선교를 막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호호적이며, 한국인이 한국형 국제학교를 중소도시에서 세우는 것을 환영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선교사는 문제제기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MK)들이 ▶정체성을 살리면서 영어 및 국제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영어 위주의 국제화 교육에 대한 것이 한국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현지 국제학교가 과연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 선교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형 국제 기독교학교'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학교의 모습은 그의 철학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기반으로 ▶정체성 교육과 모국어 억권 10세 전후의 영어교육 시작 ▶Trilingual에의 도전 ▶한국형 교육 ▶기독교 교육의 발상의 전환 ▶원어

민 교사를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미니학교의 출범 등이었다.

실제로 한 선교사는 중국 쿤밍에서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어떤 국제학교가 주변 기존의 국제학교 2/5 정도로 운영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이 모델이 자녀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전방배치하는데 좋은 돌파구도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더불어 전 세계 중소도시에서 세워질 한국형 국제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21세기 선교의 진전을 가져 올 것을 기대했다.

김성운 교수(고신대 선교학)는 논찬을 통해 "한 선교사가 제시하는 한국형 국제 기독교 학교 모델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MK들과 선교



2016 KMQ 포럼이 18일 은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 부담과 선교지 전진배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학교가 선교지에 설립되면, 한류화로 한글교육과 한국교육 방식에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과 한국형 교육의 모델을 전달하는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교와 패러다임: 교회 선

교지 선교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 선교사의 발표 외에도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김선일)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만들 것인가?"(김형국) "현대 선교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청"(엄주연) "총체적 교회"(강동진) "한국 내 외국인 이주자 사역"(허명호)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홍은혜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M.Div), 상담학(BA), 선교학(BA),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 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영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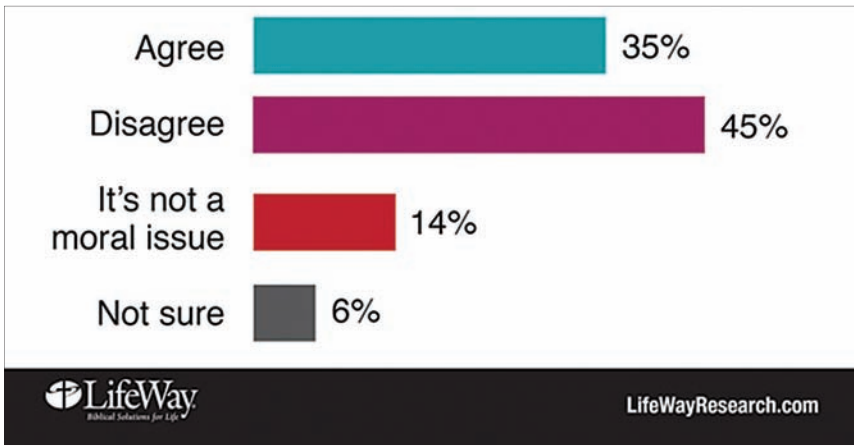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美10명 중 1명 성 정체성 문제에 관대해” 성 정체성 변겅과 실제...성 전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

[1면으로부터 계속] 그는 “우리는 성형 수술, 치아 미백, 머리카락 염색, 문신을 하듯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관한 것들을 바꾼다. 많은 미국인들이 성별도 이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별로 볼 때, 복음주의자의 경우는 54%가 성 정체성 변겅을 도덕적 잘못이라고 한 반면, 가톨릭 신자는 26%에 그쳤다. 이슬람과 유대교 등 비기독교 종교인의 35%, 무종교인의 20%가 동일한 대답을 했다. 마찬가지로 실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수

치가 높았다. 복음주의자의 61%, 가톨릭의 29%, 비기독교 종교인의 41%, 무종교인의 21%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도덕적으로 잘못’이라 봤다.

맥코넬 디렉터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소수자”라고 전했다.

이 조사는 2015년 9월 14일~2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설문으로 이뤄졌다. 표본의 신뢰도는 95%이며 표본 오차는 ±3.6%다.

김준형 기자

“UMC 사상 첫 동성애자 주교 선출” 서부 지부 주교에...동성애자 캐런 올리베토 목사 선출



결혼식을 올린 캐런 올리베토 목사(오른쪽)와 아내 로빈 리 네너우어 집사. ©페이스북

북력과 상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연합감리교 주교 위원회 브루스 R. 오휘 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부 지부는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목사임을 밝힌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의 카렌 올리베토 목사를 주교로 선출했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는 교회 정책과 일처리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들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이 올해 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합감리교의 최고결정기구

는 성과 관련한 모든 교회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 이 과정은 약 2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리교 내 비공식 복음주의 단체인 굿뉴스(Good News)를 이끌고 있는 톰 렌프 로이 목사는 최근 “이번 결정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입장을 담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리베토 목사의 주교 선출은 연합 감리교 총회가 올해 여름 ‘성 문제를 다루는 모든 교회법을 조사해야 한다’는 사제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규례서를 따르지 않는 법률의 제정을 공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동성애 운동가들 ‘위인’으로 학습” 캘리포니아 주, 초등학교 2학년부턴 동성혼 가르칠 예정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만 7세가 돼 2학년에 올라가면 두 엄마, 두 아빠 등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고 만 9세인 4학년이 되면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익보호 운동을 펼친 동성애자들, 이른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을 ‘위인’으로 배우게 됐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14일 만장일치로 이 같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등 LGBT에 대한 내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012년 미국 최초로 LGBT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기여한 대한 내용을 역사, 사회 등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넣으라는 법(SB48)이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후 이를 실제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 법이 채택된 후 이 법을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면서 교과 과정에 LGBT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결정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두 엄마, 두 아빠가 있는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 현실이 됐다.

4학년 학생들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선출직 정치인 중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허버트 미크 샌프란시스코 수퍼마이저와 같은 동성애자 운동가들을 배운다.

5학년 때부터는 18세기와 19세기에 성(gender)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우고 미국 정부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는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과 최근 성전환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에 관련된 재판 등을 사례로 배우게 된다.

이 결정은 공립학교에서 LGBT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종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등 이른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몇 살 때, 어떻게 가르칠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역사 교사들은 이 교과과정 수정에는 미국의 서부개척 정신을 설명한 명백한 운명이나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소수의 LGBT를 소개하기 위해 역사에서 중요한 다수의 그룹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케이아메리카포스트 제공}

실이었다.

4학년 학생들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선출직 정치인 중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허버트 미크 샌프란시스코 수퍼마이저와 같은 동성애자 운동가들을 배운다.

5학년 때부터는 18세기와 19세기에 성(gender)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우고 미국 정부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는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과 최근 성전환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에 관련된 재판 등을 사례로 배우게 된다.

이 결정은 공립학교에서 LGBT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종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등 이른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몇 살 때, 어떻게 가르칠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역사 교사들은 이 교과과정 수정에는 미국의 서부개척 정신을 설명한 명백한 운명이나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소수의 LGBT를 소개하기 위해 역사에서 중요한 다수의 그룹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케이아메리카포스트 제공}

교회말씀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절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 배우고, 이민2세들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정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장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말-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말-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말-토)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무일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듬한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섬지기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지혜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389-0937, (213)389-0938 F. (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제자인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인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중심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산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지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메모리얼드라이브장로교회 전경. ©크리스천포스트

“동성애 문제 입장차로 PCUSA 탈퇴”
메모리얼드라이브장로교회...3천 7백여 교인들 투표로 탈퇴 결정
약 3년 동안 3백여 교회 PCUSA탈퇴

美장로교(PCUSA)의 8번째 대형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차로 교단과 결별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휴스턴 텍사스에 위치한 메모리얼드라이브장로교회(Memorial Drive Presbyterian Church) 성도 3,700여 명은 16일 투표를 통해 PCUSA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세안악노회 마이크 콜(Mike Cole) 노회장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메모리얼드라이브교회의 탈퇴가 최근 열린 노회 회의에서 확정됐다”면서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메모리얼드라이브장로교회 에바 카민스키 대변인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은 이달 초 진행된 투표에서 탈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카민스키 대변인에 따르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9%가 교단 탈퇴를 지지했고, 세션 투표에서는 85%가

탈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는 장로회복음주의연합회(ECO)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교회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안악노회 마이크 콜(Mike Cole) 노회장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메모리얼드라이브교회의 탈퇴가 최근 열린 노회 회의에서 확정됐다”면서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폴 노회장은 “교회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기 위해 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교회에 재산을 양도하고, 교회는 5년 간 매달 13,750달러(1,570만 원)를 노회에 지불한다. 또 선교 협력에 관한 상호 동의에 따라 매달 2,083달러(240만 원)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 3년 동안 300여 개 교회가 PCUSA 탈퇴를 결정했다. 대부분의 이유는 교단 내에 동성애를 수용하는 입장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Jesus is Lord 광고 철거하려다 철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단 한 건 접수된 불만 신고로 철회하려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市)가 단 한 건 접수된 주민불만 신고를 이유로 교회의 ‘Jesus is Lord’ 광고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말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카리스 기독교 센터는 도시 전역의 교통벤처마다 ‘Jesus is Lord’ 광고를 3년 동안 게재해 왔다.

로슨 퍼듀 목사는 “광고판은 예수가 구주임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며,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도시교통부서는 퍼듀 목사에 대해 이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퍼듀 목사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으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증오의 메시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CBS 덴버는 “콜로라도시는 수정선법 제1 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을 완벽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광고에 대해 그 내용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했다.

다만 “퍼듀 목사에 대해 그의 메시지를 바꾸라고 요청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교통부서는 “수정헌법 제1 조항을 기준으로 광고와 교통본부의 현재 광고 정책 모두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과정 동안, 마운틴 메트로 교통은 이번 광고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며, 퍼듀 목사의 광고는 계속 게재될 것”이라 전했다.

퍼듀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의 초점은 교회가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광고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며 “이는 수정헌법의 제1 조항 자유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은 교회 전통에서의 이탈”
캐나다성공회 보수파 주교들...동성결혼 허용 투표 비난 성명서 발표

캐나다성공회 보수파 주교들은 최근 동성결혼을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이탈’로 간주하고, 이를 허용하는 투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성명서에서 7명의 주교들은 이 투표가 결과적으로 성공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들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래에 일어날 분열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투표는 캐나다성공회 교회들과의 관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그들 동성애 혐오에 관한 모든 표현들 또한 비판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캐나다성공회 보수파 주교들은 최근 동성결혼을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이탈’로 간주하고, 이를 허용하는 투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2013년에 시작돼, 총회의 당초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로 이어진 잘못된 개표에도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내용이 입법되기 전, 다음 2019년 총회의 제2독회(중요 법률안을 심의하는 제도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는

강혜진 기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 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AM ~ 4:3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오전강의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검증을 받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않아 목사자격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오후강의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Rev. Esau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의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군목 원목 강의 예약 필요 / 오후 강의 12개 중 3개 선택수강 가능

주최: US 채플린 연구소 / 주관: 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후원: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 기독교일보

연락처: (213) 800-1825

선교적 교회론... '이웃의 삶' 구체적 참여 강조

2016 한국선교 KMQ포럼이 '선교와 패러다임(교회 선교지 선교사)'을 주제로 18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그중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와 문화 주임)가 발제한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다. 이에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와 문화 주임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들을 소개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의 5가지 실천 포인트와 선교적 교회론이 목회와 선교 현장에 기여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목을 받았다.

18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선교와 패러다임(교회 선교지 선교사)'을 주제로 열린 2016 한국선교KMQ 포럼에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제한 김선일 교수는 우선 선교적 교회론을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규정하는 사역 모델'로 정의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의 이해에 기초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 받은 것'으로 재규정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총체적 사역이면서 일상생활과 이웃 속에서 실천적이며 미시적인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은 20세기 최고의 선교적 변증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서 출발하여 북미, 영국, 오세아니아 등 영어권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모색됐고, 21세기에 확산돼 GOCN(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과 새로운 교회 개척과 전도 모델로 부상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서구의 포스트크리스텐덤과 포스트모더니즘, 탈 교회성장주의를 지목했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과 복음 표현 양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됐고, 정형화된 교회론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이웃, 주변부에 관심을 가지는 대안적 교회론으로 '선교적 교회론'이 대두했다는 것이다.

또 교회 중심의 팽창주의, 변영주의에 초점을 맞춘 크리스텐덤 모델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양육·후원하는 선교적 교회운동이 관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교적 교회론의 수용 방식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수용 방식은 에큐메니컬 진영의 '미시오 데이'의 연장으로서 '선교적 교회론', '전도 중심의 선교적 교회 이해', '로잔언약의 계승과 통합'으로서 선교적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먼저 '미시오 데이'의 연장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교회가 과거보다 좀 더 지역적,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공적 역할을 주도하며, 전통적 전도보다는 사회 윤리가 강조된다.

과거 '미시오 데이' 운동처럼 보편적 인간화를 위한 사회운동단체에 참여하거나 특정 계층의 인권, 정의를 위해 구성된 민중교회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전통적인 지역교회들이 근접 사회 속에서 선한 이웃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선교'의 의미도 지역적, 신체적 차원으로 좁혀지고 '교회'는 특별한 아젠다를 위한 사회운동적 공동체가 아닌, 일반적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강조된다.

김선일 교수는 "한국교회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회론은 다시금 시의성을 얻고 적절 한 호소력을 갖는다"며 "그러나 복음주의적 진영에 속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의 선교적 교회론은 과거 '미시오 데이'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종종 선교적 교회와 교회 주도로 하는 사회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전도 중심의 선교적 교회 이해'는 전통적 복음전도나 해외선교에 교회 전체가 헌신하는 사역형태로 이해하는 경우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섬김도 총체적 의미의 선교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예비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김선일 교수는 "주로 복음주의 권에서 고전적 의미의 선교를 확고한 사명으로 견지하던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며, 선교단체의 신앙훈련을 받고 선교적 기질이 체화된 이들도 진화적 수용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전통적 교회 조직에서 탈피하며 공동체와 외부지향적 사역을 강조했던 셀교회, 가정교회 운동에서 선교적



2016 한국선교 KMQ포럼 참석자들이 집중하며 발제를 듣고 있다.

교회론과 접목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로잔 언약의 계승과 통합'으로서 선교적 교회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적, 사회적 선교를 추구하면서도 전통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속죄적 복음과 개인 구원을 간과하지 않는 총체적 방식의 선교적 교회론이다. 이는 젊고 개혁적



김선일 웨스턴대 교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김 교수는 "이들은 메가처치 현상, 수량적 교회성장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도 복음의 열정은 간직하고 사회적 책임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한다"며 "이들의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말은 내세적 영혼 구원의 범주를 넘어 공적 차원에서의 하나님나라 구현과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오 데이'의 연속 선상에서 선교적 교회를 수용하는 경우 "기독교 신앙의 공적 참여와 개입을 교회 중심적,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접목시키는 데 주목한 반면, 복음이 요구하는 회심의 개인적, 근본적 속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교가 온 회중의 사명, 역할임을 강조하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주된 동력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긴 했으나, 여전히 일상과 공적 삶의 영역은 선교를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존재할 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재창조)이 지니는 통전성을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 포인트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는 "최근 선교적 교회 사역자들은 선교적 비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체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최근의 5가지 선교적 교회 운동의 추동력으로 △장소 △이웃됨 △일상 △몸 △보냄 받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먼저, '장소로서의 선교'는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적 사역의 회복이 신앙의 전인성과 교회가 실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구체적 장소의 역할에 충실한 교회 개념은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이웃과 교류하고 이웃이 되는 과정을 사역의 중심 주제로 삼게 했다.

두 번째로 '이웃됨의 선교'는 이웃을 사역 대상으로 보기 전에, 먼저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다. 그는 "룩스버리는 지역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준비한 짐을 내려놓고 환영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며 "이처럼 근접한 이웃됨은 추상적 의제나 프로그램화된 봉사 프로젝트가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이웃의 삶에 참여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상을 공유하며 삶의 리듬을 함께 함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일상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론이 지역 사회에서 이웃됨을 강조한다면, 날마다 접하는 일상 영역에서 선교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음을 강조하기에, 세상에서 이뤄지는 신앙의 일상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이런 일상의 공동체는 선교적 힘과 상호적 목양의 자원이 된다. 교회개척과 전도도 전문인 영역이 아닌, 일상에서 선교 사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효과적·실질적으로 재현되고 했다.

네 번째 '몸의 선교'는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심화된 탈육체적 현상에 의해 사람을 객관화시켜 대상이나 관념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영향은 실제 삶에서 편협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직장인 신우회, 성경공부 모임이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현하며 살지 함양받기보다 직장 동료 전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며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아니며, 선교적 교회 사역은 이웃 관계와 같이 몸으로 접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보냄 받음(Sentness)'은 소비주의 사상이 신앙생활 양식에도 스며들면서 소비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이들이 교회를 통해 종교적 욕구를 채움받는 데 집중하는 것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김 교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며 "보냄 받은 백성은 존재 이유가 소비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흐름은 구체적인 이웃의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미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리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인(심내외, 차량),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속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 근처)
Tel: (626) 203-8008, (562) 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 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 9 1/2 이상, 중(M) 9-6 1/2, 소(S) 6 1/2 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저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 382-9714, 382-2827
Fax(213) 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00% 천연성분
방승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김광연 칼럼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배아의 지위

◆배아줄기세포는 무엇인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는 유한한 삶에서 벗어나 마침내 무한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질병치료를 위해 생명공학자들은 복제 기술을 선보이고 그 기술이 인간에게도 적용되었다. 복제양 돌리(Dolly)가 태어난 뒤, 생명복제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지금은 단순한 동물복제 기술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복제(human cloning)를 시도할 정도로 무섭게 발달했다.

배아(embryo)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이후, 자궁에 착상되어 태아가 되기 이전 단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배아가 자궁에 착상된 이후, 대략 7-8일째 초기 배아(early embryo)에서 배반포(blastocyst)의 단계로 넘어가 내세포괴(inner cell mass, ICM)가 생겨난다. 이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여러 신체세포를 얻어 내는 기술이 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 stem cell, HESC) 복제 기술이다.

줄기세포(Stem Cell, SC) 복제 기술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줄기세포는 모든 신체기관이 형성되는 세포이다. 줄기세포를 쉽게 설명하자면, 나무의 줄기세포를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고 그 가지에서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줄기세포에서 여러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는데, 특

히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얻은 줄기세포로서 모든 신체 기관이 형성될 수 있고 신체 분화능력이 마치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만능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라고 부른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종교계에서는 배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대를 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로 복지부에서 연구를 승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난자의 합법적 사용과 폐기 과정 및 배아복제 기술 실험과정에서 인간복제 기술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가했다.

◆ '배아의 지위(The State of Embryo)'

배아줄기세포 실험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배아가 사람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초기 배아 단계를 거쳐 배반포 이후, 배아에서 작은 씨가 생겨나는데 이를 원시선(primitive streak)이라고 부른다. 이 원시선에서 인간 신체를 형성하는 여러 개체들이 발생하고 사람의 신체 기관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이 세포덩어리가 나중에 태아가 되는데, 이 시기는 대략 14일을 기준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이 14일을 기준으로 '원시선'이 등장하면 인간 생명으로 간주하고, 원



김 광 연 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시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세포로 여긴다. 그렇다면 이 14일을 기준으로 배아의 지위를 나눌 수 있는가?

종교계에서 배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로서,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수정란, 배아 그리고 태아 모두 인간 생명과 동등하게 간주한다. 그래서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보고 있다. 배아는 말 그대로 태아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정란에서 배아 그리고 태아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순간'을 '여기부터 인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이클 샌델(M.Sandel)은 배아를 사람과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고, 배아와 태아 사이의 지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 불이 났을 때, 냉동 트레이(실험 접시)에 담겨져 있는 배아와 아기 중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과정에서 배이를

먼저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유를 든다. 이는 배아보다 태아(아기)가 지위에 앞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신비로운 영역이며, 인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정란에서 배아와 태아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서 '어느 한 순간'을 인격체로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생명공학자들이 말한 14일(원시선 발생)도 세포마다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다만 그 14일 원시선의 발생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배아는 인간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놓여 있고, 자궁에 착상된 배아는 '인위적인' 없이 '자연적으로' 두면 태아가 되는 존재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복제

현재 한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배아복제 기술과 인간복제(human cloning)기술의 연관성이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자칫 과학자의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충분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일은 없겠지만, 복제 기술의 허용이 인간복제 기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 관리가 필

요하다. 지금 영국에서는 '맞춤아기(designer baby)'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태어나기 이전' 아이의 생명을 생명공학자들의 기술에 의해 조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헌팅턴 병과 같은 유전질환에 노출된 아이의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과 맞춤형 아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유전질환을 사전에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실험을 해야지만, '디자인 베이비'가 탄생하고, 개량주의(우생학)로 나아갈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1세기 생명공학 기술의 미래는 명암이 엇갈린다. 질병치료와 우수한 유전자를 선별하는 개량주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가 시작될 것이다. 질병치료를 위해 복제기술에 선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전자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지의 결정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마침내 체세포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를 조건적으로 허용했다. 이 기술의 목적은 분명 질병치료, 시신경 손상, 뇌졸중 등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에서 사용되어지는 배아의 지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제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복제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된다.

•한수희 칼럼(10)

마음의 상처 다스리기(2)

언제든 상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상처를 주도록 짓을 쳐 놓고 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상처 받을 세팅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 형태로 말이다.

첫 번째 짓은 이중 속박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남자친구에게 붉은 색과 파란 색 넥타이를 선물한 여자친구가 파란 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남자친구를 만날 때 "붉은 색 넥타이는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묻는다. 만일 그가 붉은 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넥타이 두 개를 동시에 매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중 속박의 짓을 놓는 사람은 상대에게 모순되는 요구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심지어 "당신 목소리는 참 예뻐요."라는 칭찬에 "얼굴은 별로라는 거군요."라고 대꾸한다. 모든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기에

탁월한 방법이다.

또 다른 짓은 변덕이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을 말한다.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이전에 용납되던 기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바뀐 기준을 알리지도 않고 알아서 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내 상황이 바뀌어 있을 때는 적어도 알리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몫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하물며 고집하던 기준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경우에, 당하는 사람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상시에 농담을 잘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는 농담에 버럭 화를 내며 상대방을 무례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그 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 언제 지뢰를 밟게 될지 몰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곁을 피하게 된다.

헛된 기대 역시 위험한 짓이다.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당신이 나를 사랑한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니까.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건 다분히 고의적인 거야.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 주지 않을 때 애정이 없다고 결론 지어 버린다. 그래서 수시로 배우자를 비난하고 본인은 외롭다. 그들의 기대는 헛될 뿐 아니라 옳지 못하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이며,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 어디에 사랑이 있는

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쓸데없이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독이다.

이런 짓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상대를 상처 준 사람으로 만들고, 특별히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은 자신을 상처 받은 사람으로 결정지어 버린다. 내가 상처의 짓을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그 짓을 거둬들여야 한다. 내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이 상처의 짓을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리 수거함'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분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기초작업이다.

앞선 칼럼에서 소개했듯, 내가 상처 받는 일이 있을 때, 자문해 보아야 하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통해 나의 감정이 정당화되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 점검을 마친 후 상대가 던진 짓에 걸린 경우, 즉 '너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제 책임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양갈음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상처

받았다며 희생자의 모습을 하는 상대의 감정까지 다 떠 안지 말라는 것이다. 상처의 짓을 놓고 있는 상처 유발자들의 도발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의 도발에 걸려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늘 그 상처에 책임을 지려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그 노력들을 했음에도 더한 요구만 해오는 상대에게 결국 분노를 터트리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 상대가 느끼는 불합리한 감정은 상대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습관적으로 상처의 짓을 놓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든, 상처를 권력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동기가 분명 있다. 그것은 약한 것이며, 늘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들도 자신의 숨은 동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외롭고 추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 책임을 돌려 주는 것은 그 시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추운 계절을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상처의 자리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로 바뀔 수 있길 기도한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바로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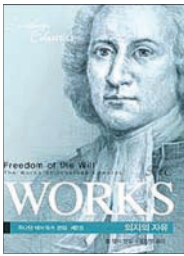


신간 추천

의지의 자유

조나단 에드워즈 | 부흥과개혁사 | 672쪽

이 책은 폴 램지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에일대 결정판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이다. 『의지의 자유』는 에드워즈의 저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작이라고 불려 왔다. 에드워즈는 생애 내내 “의지의 자유”라는 주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독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여 이 책을 읽는다면, 의지의 자유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없애고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이상규 | SFC | 480쪽

초기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종교적 상황에서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으며, 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갔을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로마 사회, 그리고 그 로마 사회의 반대와 박해, 이단들의 발현, 그 속에서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했던 교부들과 교회회의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생생하고도 입체적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뉴리바이벌

이창호 | 예수전도단 | 232쪽

전체교인 중 청년이 90%인 교회.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는 교회. 안티 중의 안티였지만 예배를 통해 변화된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바로 ‘넘치는 교회’ 이야기이다. 2007년 7월 7일 ‘넘치는교회’를 개척하고 오직 청년을 위한 교회를 되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창호 목사의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 이야기.



말씀 읽는 저녁

사무엘 백스터 | 두란노 | 372쪽

이 책은 200년간 사랑받은 스테디 묵상집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만을 담고 있다. 내 삶에 빛이 되어주는 365 묵상집이다. 저자가 매일 하나의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연결하여 읽고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우리의 하루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하루, 평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저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REVIEW

구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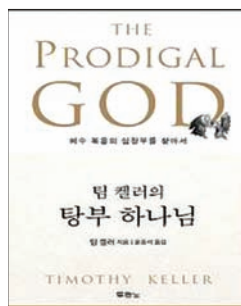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죄와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는 새로울 것 없다 치부되는 복음에 대한 예리한 도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네가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네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려다.’(본문 중) 영적 불모지인 뉴욕 한복판에서 일곱 년 사역을 통해 도심 목회 및 교회 개혁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 준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명저로 널리 알려진 팀 켈러. 작가로서의 팀 켈러를 사랑하는 애독자는 물론이고, 막연히 어려움을 거라는 생각에 그의 책을 선

뜻 펴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게, 저자 특유의 지성적 문체로 ‘탕자의 비유’의 본질적 메시지를 파헤친 <탕부 하나님>. 더없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냈고, 우리가 ‘다 안다’ 자부하는 성경 속 친숙한 이야기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으로 접근했다. 왜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인가? 이 책은 비유 속 형제의 행동과 이면의 속마음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 막다른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 192쪽

두 길을 질주하는 이 시대상을 폭로한다. 특히 온 인류가 ‘탕자’로 낙인 찍은 동생 못지않게 형도 ‘잃어버린 아들’임을 밝힌다. 팀 켈러는

단호하게 두 아들 다 틀렸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되찾기 위해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이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마음 앞에 우리를 멈춰 세운다. 저자는 ‘탕자’(prodigal son)에 쓰인 단어 ‘prodigal’(프러디걸)을, 앞뒤 제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자녀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데 과감하게 사용했다. 그 만큼 이 책의 메시지는 파격적이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굳게 믿는 성실한 기준 신자’에게 틀에 박힌 종교의 테두리를 부숴 낫것의 복음을 깎집어내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 비신자나 초신자에게는 기독

교 신앙을 올바르게 알리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엄격한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감각적 쾌락을 좇는 회의론자’, 또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형, 예수를 소개하고,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꺼내 ‘예수’라는 생명 길을 걷게 해주신 복음의 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 복음을 누리며 살라. 종말의 날에 마침내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기독교 문학]

“기독교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다”

독자를 빠져들게 하는 희곡 충격적 반전의 묘미

이 책은 단순히 재미있지도 않고, 뻔한 메시지를 성경에 기대어 게으르게 전달하지도 않는다. 두꺼운 분량이 아니지만(214쪽) 가법지도 않고,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은 책이다.

제목 ‘삼고로드’, 동유럽 어느 곳의 지명이다(검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작가가 지어낸 지역인 듯하다). 작품은 삼고로드의 한 여관에서 벌어지는 재판 내용이다.

표지에 붙은 띠지에서 밝힌 ‘노벨상 수상 작가’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 책의 문학적 장르는 표지에서 밝힌대로 ‘희곡’이다. 이 부분이 흥미롭다. 희곡은 일반 문학 분야에서는 많은데 기독교 문학 분야에서는 드물다. 대표적인 작품 <천로역정>이 있긴 하지만, 희곡은 연극대본이기 때문에 기독교 작품은 관객의 제한성을 갖고 있어서인지 잘 쓰이지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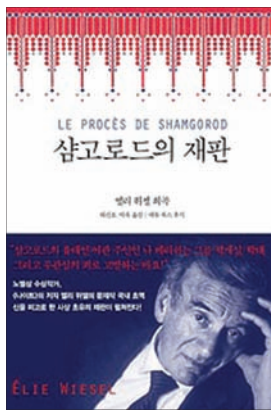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건, 희곡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생동감과 활극성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내가 일반 분야를 포함하여 근래 읽은 문학서 중에서 가장 재미있다.

저자 엘리 위젤도 낯설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밝히는 그의 이력은 가슴을 찢히게 한다. 저자는 15세 때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스실에서 처형되었고, 아버지는 이질과 피로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1649년 유대인에 대한 집단 학살 이후다. 이 희곡을 이해하기 위해선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알아야 한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림절은 유대인들의 축제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에 분노하여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다 왕후 에스터의 활약으로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에스터서의 주내용이다). 이 부림절에는 가면을 쓰고(가면을 쓴다는 점을 기억하고 읽으면 더 놀라운 반전을 느낄 것이다) 시가행진을 하며 보낸다.

무대는 여관의 로비, 단 하나다. 등장인물은 세 명의 음유시인과 여관 주인장, 하인, 딸, 신부,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의문의 나그네. 주인공장과 하인은 주종관계이지만



삼고로드의 재판
엘리 위젤
포이에마 | 216쪽

향전의 이몽룡과 방자처럼 거의 친구처럼 지낸다. 하인이 어떨 때는 깽뚫이 대하다가도 어떨 때는 주인처럼 행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침이 없다. 주인공은 하인의 이런 방약무인한 태도를 제어하기는커녕 호응해 주고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한다. 주인공과 하인의 공통적인 성격은 다혈적이다.

시인들도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니다. 여기에 재미의 포인트가 있다. 이런 장면이 있다. 세 명의 시인 중 한 명이 주인공을 기분 좋게 지게 하니 주인공은 공짜로 식사를 열 번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다른 시인이 “뇌물이요. 그건 뇌물이요!”라고 하자, “당신에게도 열 번을 대접하겠소”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시인이 바로 “그건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97쪽).

이야기는 주인공이 신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자, 시인들이 신을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하자고 주인공에게 제의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신을 단죄하기 위해 검사역을 맡은 주인공이 갖는 신에 대한 불만은 “유대인들이 죽을 때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이다. 그러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다!”고 분노한다.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도 가지는 의문이다. 주인공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한다. 시종 유쾌한 분위기로 읽다가, 목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신을 피고로 하고 변호할 역할을 정하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러자 재판관 역할을 맡게 된 시인이 “불쌍한 분. 불쌍한 왕 중 왕(102쪽)”이라며 안타까워하다, “종의 동정이 필요한 불쌍한 왕이라니(103쪽)”. 이 대사에서, 나라도 가서 변호하고 싶을 정도로 울컥했다.

그러다 중반 이후에 등장한 나그네가 자신이 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선다. 그의 변호는 상당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검사(주인장이 말씀)

는 지금 살인과 죽음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질문할 것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악함과 추함은 왜 존재하는가? 신께서 대답하지 않기로 정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은 신이시며, 그분의 뜻은 우리 뜻과는 별개니까요. 그분의 판단도 마찬가지로입니다(151쪽).”

“수 세기에 걸쳐 사랑하는 사람들의 학살 현장과 폐허가 된 집들을 보며 애도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들은 신의 방법이 의롭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합니까? 더 현명합니까? 더 순결합니까(154쪽)?”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면서 감동적이지 않다.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신은 바로고 의롭다는 신정론(神正論)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이 책이 불편할 수 있는 건, 신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으로 목사님이 아닌 신부가 나오고, 신부를 포함하여 등장인물이 모두 술을 즐겨마신다는 대목이 자주 나오며, 신부조차 신실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신부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신을 변호하는 역할로 삼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된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나그네가 등장하고 신을 변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그네 입장이 되어 나그네를 응원하게 되면서, “결말이 어떻게 될까? 신을 저주했던 여관 주인장이 회심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속도를 높여 책장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한 페이지의 몇 줄로 충격적인 반전을 목도하게 된다. 그 몇 줄로 ‘지금까지 내가 느낀 건 뭐지?’ 되물으며 나그네가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책을 다시 읽게 만든다.

당부한다. 이렇게까지 밝히니 마지막을 먼저 읽고 싶어질 거다. 그러나 참아 달라. 처음부터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이 책은 놀랍다. 기독교 문학이 가지는 어느 한계점을 뛰어넘은 듯하다. ‘이렇게도 깊게 다룰 수도 있구나!’ 싶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꼭 읽을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재미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자신의 신앙과 신에 대해 곰곰이 묵상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 문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이성구 부장
순전하나이드출판사

[북스리뷰]

“기독교 변증의 새로운 이해”



Fool's Talk
오스 기니스
복있는 사람 | 480쪽

오스 기니스가 쓴 <폴스 톡>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한국교회에 유익을 준다.

첫째, 기독교 변증은 선편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것이다. 기니스는 현대 교회에 다분히 부재한 것이 바로 ‘설득’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설득이란 우리의 메시지에 어떤 이유로든 무관심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 예술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현대 기독교는 소통과 설득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다. 이 점은 한국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복음의 설득적인 면보다 선편적인 면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인간을 향한 그분의 설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니스는 이런 기독교 변증의 설득적 측면을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오스 기니스는 <폴스 톡>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과 활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다.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전제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설득 방법이 기독교 변증이며, 기독교 변증은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익혀야 하는 소통의 방법이라고 기니스는 지적한다. 또한 기독교 변증은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소통과 설득 잃은 현대 기독교 기독교 변증은 전도와 연결돼야

강조한다. “변증은 일종의 예비 전도로서, 하나님과 복음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도에 선행한다”는 점을 말하면서도, “변증은 늘 전도로 직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니스는 기독교 변증이 어떻게 전도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셋째, <폴스 톡>은 기독교 변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기니스는 설득으로서 기독교 변증은 진리와 이성을 중시하되 모더니즘에 빠지지 않고, 무수한 이야기를 중시하되 포스트모더니즘에도 빠지지 않는 진정한 성경적 논증임을 강조한다. 또 설득으로서 기독교 변증은 합리적 논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나 드라마, 유머나 예술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소통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처럼 기니스는 기독교 변증이 일방적 자기 주장이나 합리적인 증뿐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과 형식을 활용해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기독교 변증은 단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득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넷째, 기독교를 향한 현대인들의 뼈아픈 공격이 그리스도인의 위선임을 지적한다. “위선은 언행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고질적인 약점”이며,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최악의 공격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오스 기니스의 <폴스 톡>은 기독교 변증자들이 알아야 할 변증의 자세와 전략, 그리고 변증의 기술들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변증 지식은 기독교 변증에 만이 아니라, 목회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기니스가 제시하는 변증자의 자세와 통찰력은 목회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원리이기도 하다.

박명룡 목사
기독교 변증가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겨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 소강석
지음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체성,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사망자의 회개서간 (264면 / 10,000원)
- 레위기상의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269면 / 11,000원)
- 생명의 언어 (317면 / 13,000원)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ln.com.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Together 2016' took place at the National Mall in Washington, D.C., where tens of thousands of evangelicals gathered to pray. (Photo: Susan Harris, Together 2016)

Tens of Thousands of Evangelicals Come Together to Pray in D.C.

BY RACHAEL LEE

Prominent evangelical pastors, authors, and musicians were featured at a recent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on Saturday at the National Mall in Washington, D.C. called "Together 2016," during which Christians petitioned for change — a 'reset' — in their families, in churches, and in the country as a whole.

Organized by an evangelistic group called PULSE, the event gathered crowds of tens of thousands, and the lineup of speakers included pastor and author Fran-

cis Chan, rappers Lecrae and Trip Lee, apologist Ravi Zacharias, former Southern Baptist Convention president Ronnie Floyd, "The Call" leader Lou Engle, author Ann Voksamp, and author and spoken word artist Amena Brown, among dozens of others. Hillsong United, Kirk Franklin, Matthew West, Crowder, Passion, Lauren Daigle, Michael W. Smith, and Jeremy Camp were among the worship artists featured at the event.

Pope Francis also shared a few words through a video message, encouraging attendees to "find the

One who can give [them] an answer to [their] restlessness."

Throughout the all-day event which lasted from 9 AM to 4 PM, speakers pointed to Jesus as the one who can bring change and healing, and some referenced recent incidents of violence, such as ones that involved the police in Dallas and Baton Rouge.

"Jesus can heal our nation. Jesus can heal relationships," said Ronnie Floyd.

"There's nothing too great in your life that God can't reset," said apologist Josh McDowell, sharing his own story of surviving abuse

during his childhood, "nor anything too small that He's not interested in."

"God has a plan to heal this world," Nabeel Qureshi of the 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ies said. "It can only happen through His hands and His feet, and that is us. That's why you are alive. To share this message and transform this world by the Holy Spirit living inside you."

Nick Hall, the leader of PULSE,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previous to the event that he hopes the event could stir unity and help people to be hopeful.

"Everything now is protests: 'I'm against this,' or 'I hate that,'" Hall said. "We really believe there is a longing to come together. We don't have to agree on everything, but we can come together around the hope of Jesus."

"There are moments when God's people come together, and God does something that can heal, change, define generations," Hall added.

Meanwhile, the event,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to take place from 9 AM to 9 PM, was cut five hours short due to extreme heat.

Grace Mission University Achieves ATS Accreditation Status

Latest accredited member status achieved after TRACS, ABHE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Grace Mission University (eng.gm.edu) officially achieved accredited member status in the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S. and Canada) this June. Previously, the school had also achieved accredited member status in other associations including in 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and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mong Korean theological schools in the U.S., Grace Mission University is the only one which has achieved accredited member status in all three of these associations.

GMU is a theological school affil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but students of other denominations make up some 60 percent of the school's student body. Located in the campus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in Fullerton, CA, the school offers a bachelor's in theology (B.Th.), a master's in Christian

education (M.A.), a master's in intercultural studies (M.A.ICS.), a master's in divinity (M.Div.), and a doctoral degree in missiology (D.Miss.). The school currently has some 267 students, and offers I-20 visas, financial aid for U.S. residents and citizens, and financial aid for members of the military. As a school tha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missionaries, tuition is affordable and the school offers various types of scholarships for families, ministers, and missionaries.

Some of the school's strengths include its staff comprising of professors with doctoral degrees from major theological schools in the U.S., a cutting-edge school operating system among Korean theological schools; and the option of remote learning through online classes.

GMU also offers an English track, allowing Korean Americans and students of other ethnicities to be able to earn all credits necessary through classes taught in English.

GMU plans to open a Los Angeles campus in the near future.

'Raising Up Children to Be th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Tacoma First Baptist Church hosted its annual VBS from July 5 to 9 this year. (Photo: Tacoma First Baptist Church)

BY BRIA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acoma First Baptist Church hosted its annual Vacation Bible School earlier this month from July 5 to 9.

The VBS featured sermons and worship each day, and Bible studies led by different teachers according to age groups. Some 100 children went up to the altar to receive Christ, confessed that they are sinners, and confessed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at he is their Savior and Lord.

With the theme, "Jesus Sees, Knows, Saves," the VBS was attended by children as young as four years old and as old as in the sixth grade, and also featured a water theme as the children went on an underwater adventure to find the truth.

"This year's VBS was a precious time of allowing our kids to learn about God and His Word — not only Korean American kids, but also Latino, Chinese, White, and other ethnic kids in the Tacoma community," stated Tacoma First Baptist Church. "Through VBS,

we hope to raise up the children in the Tacoma community to become th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as they are nurtured in the Christian faith. We hope they will bring a gospel influence to their communities and to the nation through the hope and vision that Jesus gives."

Parents were invited to attend during the last day of the VBS, during which children shar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the week.

The VBS was put together and operated by 100 teachers and 50 volunteers.

Oriental Mission Church Celebrates 46th Anniversary

BY RACHAEL LEE

Oriental Mission Church, which has come alongside the history of Koreatown, celebrated its 46th anniversary with a concert on Sunday.

The concert, which took place on July 17 at 1:30 PM, featured various musical numbers, including a choir group, a saxophone performance, and songs by two Korean Christian singers.

OMC will also hold special services on July 29-31 on the theme, "Back to the basics of church."



Oriental Mission Church hosted a concert in celebration of its 46th anniversary.



Grace Mission University staff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on July 18 that the school has achieved its ATS accredited member status. (Photo: GMU)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Fewer Americans Think Churches Play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Social Issues

BY CHRISTINE KIM

Fewer Americans believe tha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have a significant role in addressing social problems, findings from new research by Pew Research Center suggest.

Four in ten Americans (39 percent) say tha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contribute “not much” or “nothing” in addressing important social problems, an increase from previous years. However, the majority (57 percent) still say that such institutions contribute “a great deal” (19 percent) or “some” (38 percent).

In August 2008, 75 percent of respondents said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play “a great deal” or “some” of a role in helping to solve social issues. Four years later in July 2012, that figure dropped by 10 percentage points at 65 percent who would say that religious establishments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issues.

The decrease in this belief, the study suggests, may be due to the increase in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as religious “nones,” or those who do not ascribe to any particular religion. The study found that the religious “nones” are the less likely to see the

church as playing a vital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38 percent).

However, the notion that religious establishments play a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is less prevalent even among religiously affiliated adults.

“Among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for instance, seven in ten now say religious institutions contribute ‘a great deal’ or ‘some’ to solving important social problems, down 16 percentage points from 2008,” Michael Lipka, a senior editor at Pew Research Center, said. “And among white Catholics, 61% take this view, down 18 points over this eight-year span.”

Evangelicals Less Likely to Acknowledge Police Brutality Among Minority Groups

BY CHRISTINE KIM

Evangelical Christians are less likely than most Americans to say that people of color and other minority groups are treated unfairly by police,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by The Barna Group.

Less than one third (29 percent) of evangelicals say people of color are unfairly targeted by law enforcement.

“All other faith segments in America stand in contrast to this—with half or more believing this to be the case,” the Barna Group study titled “Americans’ View of Police Brutality” found on Thursday.

Over half of non-evangelical Christians (49 percent) as well as atheists and agnostics (67 percent) say that unfair treatment is a reality among people of color.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viewpoint along racial boundaries.

The group found that non-White born-again Christians (82 percent) were three and a half times more likely than their White counterparts (24 percent) to believe that minorities are treated unfairly by the police.

The study found that Black Americans are the most likely to say that law enforcement unfairly target people of color (53 percent) along with one third of Hispanic Americans who would say the same (34 percent). White Americans were found to be the least likely to agree with that statement (14 percent).

Black Americans (56 percent), Hispanics (29 percent), and Asian-Americans (28 percent) were also more likely to say they either “absolutely” or “possibly” fear police brutality than White Americans (4 percent).

Millennials (35%), liberals (34%), Democrats (31%), parents with chil-

dren in the household (31%), and unmarried adults (29%) were also more likely to fear police brutality than White Americans.

The study found that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region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fear for police brutality.

“These findings represent a challenging reality for evangelicals and their leaders. Huge gaps exist between most evangelicals and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gaps in perception about the extent and proximity of prejudicial law enforcement,” president of Barna David Kinnaman, who also directed the study, expressed.

“To help evangelicals grapple with the problems of implicit racial bias, Christian leaders must come to realize how deeply and personally experienced these problems are for so many in society and in the church,” Kinnaman said.

Pokémon Go: Demonic Danger or Outreach Opportunity?

BY RACHAEL LEE

As the augmented reality game Pokémon Go is increasingly gaining popularity across the world, Christians have expressed varying viewpoints across the spectrum, with some calling the game a demonic influence, and others embracing it and putting up signs at their churches welcoming Pokémon Go players.

The game has been a topic of concern and interest for Christians not only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ultural phenomena in recent weeks (the game has had more than 15 million downloads as of July 13 according to SensorTower, and has some 21 million active daily users in the U.S. as of July 11 according to SurveyMonkey), but also because many churches are actually a part of the game, either as PokéStops (locations where players can gather free items) or gyms (where players can battle against each other with their best Pokémon).

Hence, pastors, ministry leaders, parents, and lay Christians have been wondering how they are to feel about this new craze, as they find their congregants, their friends, their family members, and even themselves, joining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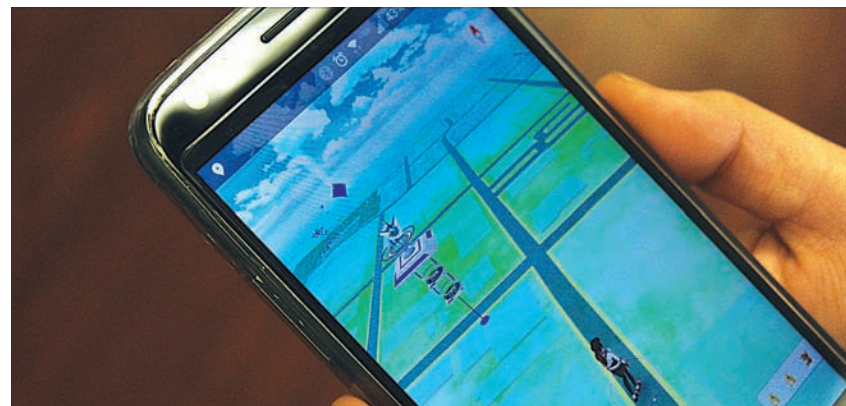
Rick Wiles of ‘Trunews’ was one who was vocal about his opposition to the game. In an interview with Right-Wing Watch, he said, “The enemy, Satan, is targeting churches with virtual, digital cyber-demons. I believe this thing is a magnet for demonic powers.”

Indeed, some pastors and Christian parents have long been wary of Pokémon since its early days as a TV show and throughout its earlier progressions into a card game and then into a Nintendo Game Boy game. Opponents of Pokémon have pointed to its name — a shortened term signifying ‘pocket monsters’ — and the ghostly references in the game — such as ghost-like Pokémon (e.g. ‘Ghastly’) and attacks (e.g. ‘hypnosis’) — as reasons for their opposition.

“Everything that we do, whether it is a ‘game’ or not, trains us or conditions us in various ways,” wrote Michael Snyder, founder and publisher of ‘End of the American Dream,’ on Charisma News.

However, some have found Pokémon Go less offensive than the earlier versions of Pokémon games. The Christian Apologetics & Research Ministry (CARM), a group which originally posted a blog in 2007 saying that the Pokémon card game has ‘occult-like’ themes, edited its original post to add some comments on Pokémon Go.

“Recently, Pokémon has experi-



Pokémon Go has some 21 million active daily users in the U.S. as of July 11, according to SurveyMonkey.

enced a resurgence ... My daughter who, I just found out, plays Pokémon Go, told me it’s fun and that there are no occultic overtones associated with it,” the CARM wrote. “So, downloaded the mobile phone app version of Pokémon and my daughter and I played it for 1/2 hour. So far, nothing occultic has surfaced in the new version. I’m going to continue my research.”

Tony Kummer wrote on the Ministry to Children blog that concerns that Pokémon Go and similar games are demonic is “beyond the normal way [he thinks] about demons.”

“I tend to associate [demons] with the serious evil acts, typically things that are defacing (or denying) the image of God in other people. Something like terrorism, child abuse, human trafficking, and related violence. So the cartoon monsters in kid games didn’t really rise up to that level of danger,” he said, adding, “I certainly don’t encourage anyone to trespass their own God-given conscience on this issue, no child’s game would be worth that.”

Others who oppose the game cite safety concerns, such as Mark Kilcup, senior pastor of East Renton Community Church. The church is a PokéStop, and Kilcup expressed concerns that strangers playing the game may pose dangers to children at the church.

“We are concerned about people we don’t know that are near our play set because the safety of these children is our No. 1 priority,” Kilcup told the Christian Post. “We would like to opt out of this ‘Pokémon Go’ game.”

Meanwhile, Christians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see Pokémon Go as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more people and invite people from the community to their churches.

James Lee, the manager of visual arts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Greater New Jersey, offered some suggestions in a Facebook video on how churches can use Pokémon Go to bring more people, such as placing a

charging station or offering free wi-fi. If the church is a PokéStop, Lee suggested using an item called the ‘lure module,’ which would attract more Pokémon to the PokéStop for 30 minutes.

“Say your Sunday service is at 11 AM. Announce via social media and church sign that you’ll use a lure module at 10:30 AM on Sunday right before your service. People will flock to your church for the 30 minutes, and then you can invite them to stay for service,” Lee said.

Some point to the types of connections that are made through the game as a benefit, saying that it offers more possibilities to encounter strangers and easily start conversations.

“In the real world this game breaks down social barriers, we started several conversations with other players in the park,” said Tony Kummer, describing his own experience playing the game with his family. But he added the disclaimer, “That was no danger while I was with my boys, but I’m not comfortable with those interactions had I not been present.”

Drew Dixon, who has met various gamers while serving in a ministry called GameChurch, wrote on Christianity Today that Christians should use this connection factor of the game as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rather than trying to ‘recruit’ them to come to church.

“I firmly believe in the necessity of the local church, and we should be paying careful attention to culture in order to point people to Christ,” wrote Dixon. “This doesn’t mean we should leverage the PokéStop status of church buildings as a recruitment tool.”

“We don’t have to use Pokémon Go as a gimmick; the game itself is designed to provide us opportunities to connect and interact with people in the real world,” he continued. “Instead of using Pokémon Go to draw others inside the church walls, then, why not go outside and play?”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